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11: 하나님을 향한 갈망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적극적 표지 11, 인쇄 531~539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운다. 참된 은혜의 감정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키운다. 거짓 감정은 제 자신에 만족하고 멈춘다. 이어서 이유를 댄다. 은혜를 맛볼수록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지도 더 잘 보인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아직 자라는 아이다. “영적 즐거움은 영혼을 만족시킨다는데 모순 아니냐”는 반론에는, 그 만족이 어떤 의미의 만족인지를 네 가지로 풀어 답한다. 반대로 거짓 감정은 회심했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 추구를 끝낸다. 에드워즈는 성경이 성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라 부르고 회심을 '시작'으로 그린다는 점으로 이를 반박한다. 끝으로 위선자도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갈망의 크기보다 갈망의 대상과 동기, 곧 거룩함 자체를 원하는가를 시금석으로 삼는다.

🪪 표지 카드

표지 11(적극): 은혜로운 감정은 높아질수록 영적 성숙을 향한 갈망을 더 키우지만, 거짓 감정은 제 자신에 만족해 멈춘다.

참된 은혜는 거룩함의 맛을 알게 하는 '영적 미각'을 키운다. 그래서 맛볼수록 더 원하게 되고, 자기가 아직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더 또렷이 본다. 거짓 감정의 목적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안심과 위로다. 그 목적이 채워지면 추구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뒤 갈망이 자라는가, 꺼지는가'가 둘을 가르는 표지가 된다.

📜 1. 명제: 타오를수록 더 타오르려는 불꽃

에드워즈는 은혜로운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르는 크고 뚜렷한 차이 하나를 내놓는다. 은혜로운 감정은 높아질수록 영적인 것을 향한 갈망을 더 키운다. 거짓 감정은 그 자체로 만족해 버린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아직 많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불꽃에 빗댄다. 높이 타오를수록 더 격렬히 타오르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망은 이미 거룩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은혜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때에 가장 강하다.

1. 은혜로운 감정은 갈망을 키운다
2. 거짓 감정은 제 자신에 만족한다
3. 더 사랑할수록 덜 사랑함을 슬퍼한다
4. 갈망은 거룩한 사람에게 더 강하다
5. 불꽃 비유: 타오를수록 더 타오르려 함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명제를 세우는 단락. 성경 근거는 다음 절에서 제시된다

"불꽃이 높이 타오를수록, 그 불꽃은 더 강렬해지고, 더 불타오를수록, 더 격렬하게 타오르려고 한다."

📜 2. 갓난아이와 젖: 이 땅의 성도는 아직 자라는 중

갓 태어난 아이가 본성적으로 젖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건강할 때 식욕도 가장 왕성하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최대치는 장차 받을 영광을 '맛보기'로

이를 완전함에 비하면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도달한 최고 수준에도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바울의 고백이 그 증거다.

1. 새로 난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람을 원한다
2. 건강할수록 식욕이 왕성하다
3. 이 땅의 은혜는 천국의 맛보기·보증
4. 최고의 성도도 아직 어린아이
5. 바울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했다

> **베드로전서 2:2~3**
>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갓난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는 핵심 근거
>
>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 **고린도후서 1:22**
> 성령은 마음에 주신 '보증'. 지금 누리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
>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5:5**
> 같은 '보증' 개념으로 현재 은혜가 미완성임을 보인다
>
>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 **에베소서 1:14**
> 성령은 기업의 보증. 온전한 것은 아직 앞에 있다
>
>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빌립보서 3:13~15

바울조차 뒤엣것을 잊고 푯대를 향해 달린다. 성숙한 자의 태도라는 증거 (재료의 '빌 1:13~15'는 3장의 오기)

>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3. 왜 그런가: 맛볼수록 아름다움도, 모자람도 더 보인다

에드워즈는 이유를 셋으로 댄다. 첫째, 거룩한 감정을 경험할수록 '영적 미각'이 자란다. 영적 미각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으로 알아보는 감각이다. 둘째,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은혜를 더 받을수록 자기의 빈곤과,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까지의 거리가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이것은 앞서 복음적 겸손에서 입증한 내용이다. 셋째, 모든 생물은 다 자라기 전까지 본능적으로 자람을 원하고, 건강할수록 더 원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친다. 체험이 클수록 그는 더 간절한 '거지'가 된다. 이 갈망은 게으른 소원에 머물지 않는다.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부지런히 쓰게 만든다.

1. 영적 미각이 자라 아름다움을 더 안다
2. 받을수록 자기 빈곤이 더 보인다
3. 복음적 겸손과 같은 뿌리다
4. 자라는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람을 원한다

믿음과 '더 필요함'이 한 고백에 함께 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외침의 본보기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거룩함을 참되고 은혜롭게 갈망하는 것은 결코 나태하고 무력한 갈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반론: "영적 즐거움은 영혼을 만족시킨다면서?"

누구나 영적 즐거움이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갈망이 점점 커진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을까? 에드워즈는 '만족'의 뜻을 따져 보면 모순이 아니라고 답한다. 영적 즐거움이 조금만 맛봐도 물리게 하는 성질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신 네 가지 의미에서 만족을 준다. ① 영혼의 본성과 필요에 꼭 맞는다.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돌지 않는다. 물리지 않으므로 같은 즐거움을 더 원하게 된다. ② 품었던 기대를 실제로 채운다. 세상 즐거움은 큰 기대만큼 실망을 준다. ③ 만족이 오래간다. 세상 즐거움은 특정 욕구 하나만 채우고 금방 물린다. 그러면 더 근본적인 '기쁨을 원하는 욕구'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을 채울 것이 없다. ④ 원하는 만큼 채우기에 충분한 자원, 곧 '무한한 바다'가 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원인은 자기 입을 충분히 열지 않은 사람 쪽에 있다.

1. '만족'의 뜻을 구분해야 한다
2. 영혼의 본성에 맞아 다른 데로 떠돌지 않음
3.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음
4. 물려서 꺼지지 않는 영구적 만족
5. 자원은 무한, 부족은 우리 쪽 문제

(이 절에서 에드워즈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개념을 구분해 반론에 답하는 논리 단락

“만일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다.”

📜 5. 만족과 갈망은 함께 자란다

에드워즈는 덧붙인다. 위의 말이 '조금 맛본 것을 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맛볼수록 갈망이 커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그는 땅 쪽으로 몸을 기울일수록 중심을 잃고 더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비유로 든다. 끌어당기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게 끌린다는 말이다. 영적인 선은 본질상 만족을 준다. 바로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영혼은 그 충만을 원한다. 경험할수록 그 선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더 알게 되고,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더 간절히 원한다. 결론은 이렇다. 영적 감정은 클수록 은혜와 거룩함을 더 원한다.

1. 만족을 주기에 오히려 더 원한다
2.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끌린다
3. 아름다움을 알수록 갈망이 커진다
4.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 **(이 절에서 에드워즈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 앞 절의 답을 마무리하고 명제를 다시 확인하는 단락

📜 6. 거짓 감정은 반대로 간다: 확신을 얻으면 추구가 끝난다

거짓 감정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 큰 갈망이 있었더라도,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며 거짓 감정이 고조되면 그 갈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에드워즈가 그리는 위선자의 모습은 이렇다. 율법 앞에서 지옥을 두려워할 때는 빛을 얻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거짓 감정이 “너는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곤핍한 피조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부유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회심을 한 번 얻었다고 여긴 뒤로는 은혜의 방편을 쓰던 열심이 끝난다. 그리고 처음 체험이나 과거의 큰 체험에 기대어 산다.

1. 거짓 감정은 고조될수록 갈망을 꺼뜨린다
2. 목적이 '안심'이라 충족되면 멈춘다
3.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긴다
4. 회심 체험이 '끝'이 되어 버린다
5. 과거 체험에 기대어 산다

> **(이 절에서 에드워즈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 위선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락. 다음 절에서 성경으로 반박한다

📜 7. 성경의 그림: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 회심은 시작

참된 성도를 움직이는 거룩한 원리는 노예적인 공포보다 훨씬 강하게 하나님과 거룩함을 찾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참된 성도의 이름으로 쓴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찾음과 수고를 회심 이후의 일로 주로 묘사하고, 회심은 해야 할 일의 시작으로 그린다.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가득하다. 깨어 있음, 자기를 살핌,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림, 분투함, 정사와 권세와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섬, 앞엣것을 잡으려 좇아감, 항상 기도에 힘씀, 밤낮 부르짖음. 이런 말은 대부분 성도에게 주어졌다. 회심을 구하는 죄인에게 한 번 쓰였다면 성도의 의무에는 열 번 쓰였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실제로 회심하기도 전에 분투를 끝내고, 부자가 된 양 게으름 속에 앉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1.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도의 이름
2.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
3. 신약의 분투 언어는 주로 성도에게
4. 회심 전에 노력을 끊내는 비성경적 길

시편 24:6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69:6

'주를 찾는 자'가 성도를 부르는 이름으로 쓰인 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시편 69:32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이 소생한다. 찾음이 성도의 지속적 모습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시편 70:4

주를 찾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 갈망과 기쁨이 함께 간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53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경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 8. 위선자의 '갈망'과 성도의 갈망: 무엇을 원하는가

에드워즈는 공정하게 인정한다. 위선자 가운데도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나도 더

목적이다. 하나는 자기 상태를 더 확신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고 남보다 높여졌다는 만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기'를 원한다. 혹은 “갈망하지 않으면 나쁜 징조”라는 생각에 억지로 만든 갈망도 있다. 성도의 갈망은 몸에 생명의 열기가 있듯, 살아 있는 몸이 숨 쉬듯 새 본성에 자연스럽다. 그 대상도 거룩해지는 것 자체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죽기를 원하는 것, 큰 깨달음을 원하는 것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만큼 뚜렷한 표지가 되지 못한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마지막 표지로 넘어간다.

1. 위선자도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대상이 확신·위로·높아짐이면 거짓
3. 억지로 만든 갈망도 있다
4. 성도의 갈망은 숨쉬기처럼 자연스럽다
5. 거룩해지려는 열망이 가장 뚜렷한 표지

> **요한복음 4:34**
>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양식'. 영적 식욕의 대상이 거룩한 순종이라는 근거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 **베드로전서 2:2**
>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목적은 사랑받는지 확인이 아니라 자라기 위함
>
>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 **이사야 33:6**
>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도의 보배. 은혜 자체가 원하는 대상이다
>
>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거부하며 움직이는 것. 에드워즈에게 신앙의 중심이다.

갈망·영적 식욕
거룩한 것을 더 원하는 마음. 배고픔이 몸이 살아 있다는 신호이듯 새 생명의 신호다.

영적 미각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으로 알아보는 새 감각. 거듭난 사람에게 생긴다.

보증
장차 받을 전체 유산의 일부를 미리 주는 계약금. 지금 누리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킨다.

복음적 겸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비천함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겸손. 은혜가 클수록 깊어진다.

은혜의 방편
기도·말씀·예배·성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정하신 수단.

위선자
여기서는 일부러 속이는 사람보다, 거짓 감정에 스스로 속아 자신이 회심했다고 믿는 사람.

노예적 공포

도덕적 탁월성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 성도의 갈망이 향하는 진짜 대상이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은혜의 감정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키우고, 거짓 감정은 제 자신에 만족해 멈춘다.
- 영적 즐거움은 참으로 만족을 준다. 바로 그래서 맛본 영혼은 그 충만을 더 원한다.
-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을 찾는 자'라 부른다.
- 갈망의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확신·위로·자기 높아짐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자체를 원하는지가 시금석이다.
- 참된 갈망은 숨쉬기처럼 자연스럽고, 게으르지 않으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쓰는 삶으로 이어진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2편 · 더 목마르다 · 표지 11 영적 갈망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